

13기 딜리팀 무빙스쿨 보고서

공동 주거의 새로운 대안, 셰어하우스

D-WELL In -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주거 커뮤니티(셰어하우스) 비영리 단체이다. 이 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체인지 메이커, 사회혁신가, 활동가로 부르는데 디웰은 이들이 연대 / 협력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만드는 사회 변화를 꿈꾼다.

민달팽이 유니온 - 공동 주거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제도 문제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 단체이다. 연대 학생회에서 시작했고, 청년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 연대 전체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자 이제 딜리팀 출발!

저희는 셰어하우스를 주제로 디웰과 민달팽이 유니온을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디웰은 성수동 독섬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연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구파발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조금 더 걸어보기 위해 구파발역보다 한 정류장 일찍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몰라서 그냥 내렸다는 게 함정 ㅠ ㅠ



그래서 길도 물어봤습니다.

자발적 불편을 실행하기 위해 스마트폰 지도는 보지 않고, 주민분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바로 지하철 역을 찾을 수 있었어요.



긴 시간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성수동에서 찾은 디웰 살롱.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나타나신 담당자님.

뒷모습이 매력적입니다 ㅋㅋ



들어오자 마자 보이는 디웰 살롱.

예쁜 조명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살롱 한쪽 벽면에 걸려있던 마을 책자.

마을에 대해 상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살롱 1층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자발적 불편을 실천했습니다.



지하에는 신주옥 작가님의 그림 전시회가 1월 내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주옥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워크숍도 있었다고 해요.

이 공간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 등 디월 멤버십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살롱을 둘러보는 시간을 잠깐 가진 뒤,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뒤에는 디월의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하우스 내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디월 하우스의 벽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계단에 걸려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는 당일에 가장 자신있는 신체부위를 정해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직접 벽에 액자를 건다고 해요. 대표님은 이 액자가 곧 입주민들의 입주 의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디월의 거실.

입주민들은 총 6개의 각기 다른 컨셉을 가진 거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은 휴식의 거실인 2층 거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화를 보거나 편히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실 외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 식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디월 인터뷰가 끝나고 민달팽이 유니온으로 가는 길에 먹은 늦은 점심 식사.

적은 활동비를 아끼기 위해 길에서 분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지만, 어묵국물을 텀블러에 담지 않고 종이컵을 사용했어요ㅜㅜ



민달팽이 유니온으로 가는 길에 사전 방문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대신 직접 종이에 적어온 전화번호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있는 청년 허브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전화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어봤었습니다.



청년 허브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마을지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님.

길을 헤메느라 약속시간 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지만 괜찮다고 말하시며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인터뷰를 끝내고 만난 비리시리팀!

우연히 같은 청년 허브로 무빙스쿨을 나온 비리시리팀과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연수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웠어요.

딜리팀의 무빙스쿨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개인마다 소감들을 적어보았어요!

개인 소감

환용 -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 지식을 얻어서 정말 뜻 깊었고, 디월과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들은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20대의 청춘을 100% 투자하여 치열하게 사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다. 또한 청년의 문제에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쉼어하우스라는 독특한 공간에서의 갈등을 우리의 상황에 비교하여서 극복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슬 -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사람들은 정작 몇 되지 않아 외로웠다. 디월의 쉼어하우스는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청춘들이 모여 살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허지용 담당자와 나의 연결고리는 이번 인연을 시작으로 운영자와 세입자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

동환 - 연수원에서만 계속 있다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군대 휴가나가는 기분을 느끼며 상쾌하게 잘 즐기다가 왔다. 생각한 것 보다 사회 문제에 대해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웠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보연 - 사실 요즘 들어 목표의식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무빙스쿨로 디월 대표님이나 입주민, 민달팽이 유니온 국장님 등을 만나게 되면서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확신에 찬 모습들이 멋있다고 느꼈고, 나도 내 가치관과 신념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